

목차

-개회사	2
-컨퍼런스 프로그램	5
-컨퍼런스 발제문	
마케도니아의 양심적 병역거부(보로 키타노스키)	7
에리트리아반군사주의운동(아브라함 게브레에수스)	10
군 모병과 반-모병:미국 내의 어려움(이반 브로이다)	16
핀란드-양심적 병역거부의 전통과 군사주의 전통(시모 헬스텐)	19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소개	
역사:세계병역거부자의 날	27
비폭력트레이닝	28
비폭력직접행동	30
평화콘서트 '밀리터리 인 더 시티'	31
-주관단체 및 해외참가자 소개	32

Index

Conscientious objection in Republic of Macedonia (Boro Kitanoski)	35
Eritrean antimilitarist initiative (Abraham Gebreyesus Mehreteab)	38
Military recruitment and counter-recruitment: a challenge within the United States(Ivan Broida)	45
History of CO in Greece and Demands of the Association (Angelos Nikolopoulos)	48
Finland - a trad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a tradition of militarism(Simo Hellsten)	56
Conscientious Objection in Israel(Alex Parushin)	66

개회사

어제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곳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희생과 활동 그리고 각국의 병역거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발표 내용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하루 빨리 한국에도 도입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 여기에 같이 해 주신 국내외 활동가, 평화의 동지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탄압을 받은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군사주의 우위의 사회 구조 하에서 군 복무는 건강한 신체를 지닌 모든 국민의 의무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떻든 이와 같은 ‘신성한’ 의무를 회피하는 범법 행위로서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정권이 물러나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병역거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누적된 피해자의 숫자가 만여 명에 이르기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난은 한국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군대를 가기 싫다는 또 하나의 소극적인 변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갈구하는 내면의 고상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알려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처벌 법규에 따라 수감되어 내심의 진정성이 무시당한 채 갖은 멸시와 때로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한결같이 비폭력적이며 순수하고 성실함을 유지한 이들의 감옥 생활은 일반인의 관심을 끌고 지식인의 윤리적 각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혼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일관된 평화주의 신념과 처벌에 굴하지 않는 용기는 시사하는 바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관심의 벽 너머에서 고난을 자초하고 있었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실상이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 짐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사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곧 이들을 위한 변호인단이 조직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 및 이를 받아 들여 제도화 한 해외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어서 평화를 위해 무기 수령을 거부하는 권리는 국제인권규약이 정하는 중요한 인권의 하나라는 사실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성과로 상당수의 하급 법원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형을 낮추거나, 재판을 유예 또는 보석으로 석방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등의 동정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유죄 또는 무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대법원은 대체복무제의 입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기는 하되 결국 종전 그대로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의 판례를 좇아 대체복무제 없는 현재의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유엔 인권기구는 80년대 이래 모든 국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들이 군 복무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선언해 왔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Human Rights Commuttee)에 보고되었고, 동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정례 인권 보고서 평가와 병역거부자가 제기한 통보 (communication) 심사 자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대체복무 입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7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참화를 겪은 한국에서 평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대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한국에는 2차 대전 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을 벌여 온 미국의 군대가 장기간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 전후로 수많은 남북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불과 몇 해 전에도 서해상에서 남북 해군이 전투를 벌인 일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아직 정전 상태이며, 이를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평화주의 신념은 이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의 하나로 존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 유엔 차원에서 논의 중인 평화권(right to peace) 개념 또한 한국 사회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한 과거의 여러 사례를 비롯하여 오늘 날 많은 나라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의 시행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인권 존중에서 나아가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국가에 이익을 주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예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교도소에는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대신 스스로 선택한 대체복무를 통해 그 신념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 존중은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진정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07년의 대체복무 도입 약속을 지체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결단을 앞당기는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모인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태

민변 변호사, 병역거부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컨퍼런스 프로그램

일시 | 2009년 5월 16일 (토) 오후 1시~4시

장소 | 서울대의대 합춘회관 3층 대강당 가천홀(대학로, 혜화역 3번출구)

④ 목적

- 각 국의 병역거부 운동의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한다.
- 컨퍼런스에 참여한 청중, 언론 등을 통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세계적 현황과 한국 상황을 널리 알려낸다.
-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기여한다.

④ 내용

사회 : 임재성 (병역거부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축사 : 이석태 (민변 변호사, 병역거부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1부 각국의 사례발표

- 핀란드 : 시모 헬스틴(Simo Hellston)
- 마케도니아 : 보로 키타노스키(Boro Kitanoski)
- 미국·푸에르토리코 : 이반 브로이다(Ivan Broida)
- 에리트리아 : 아브라함 게브레예수스(Abraham gebreyesus)
- 이스라엘 : 알렉스 파루신(Alex parushin)

2부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④ 발표국 및 발표자 소개

- 유럽연합은 가입조건으로 대체복무제 허용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

해 어쩔 수 없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2배에 가까운 대체복무 기간, 매우 까다로운 신청절차 등의 수준미달 대체복무는 그리스의 병역거부운동을 멈출 수 없게 하고 있다. 최근 반전운동가들의 모임 장소에 폭탄테러가 자행되는 등 그리스 사회의 군사주의는 매우 강력한 편이다. 발표자 안젤로스는 '그리스병역거부자연합(Greek Associa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이다.

- 마케도니아는 불과 얼마 전까지 징병제도 하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운용하다가 현재는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이다. 지구의 화약고라 불리는 발칸반도의 군사주의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그 속에서 비폭력운동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평화운동가들의 활동은 이런 상황을 조금씩 희망적으로 바꾸어내고 있다. 발표자 보로는 병역거부자로 '피스액션(Peace Action)' 활동가이다. 발칸지역 평화·반전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집행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자치령 섬으로 미군기지, 군 입대 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미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모자라는 군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한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신병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병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개인과의 고용계약을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직업군인들을 군대에 묶어두고 있다. 발표자 이반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푸에르토리코 캐리비안 프로젝트(Caribbean Project for Justice and Peace in Puerto Rico)' 활동가이자 미국 '전쟁저항자연맹(War Resisters League)' 멤버이다.

- 에리트리아는 1991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아프리카의 신생국가로서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영국, 에티오피아 등의 식민지를 겪었다. 여성까지 징병되는 이 나라는 오랫동안 계속된 전쟁을 경험해왔고 사회의 모든 갈등을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되어 왔기 때문에 군사주의가 매우 강력한 국가이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내부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가 있으며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있었던 에티오피아와의 전쟁 이후 많은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거부하고 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표자인 아브라함은 지뢰피해 생존자이며 현역 당시 병역거부를 하고 현재 독일에서 난민으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 이스라엘은 여성까지 징병되며 일상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실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이다. 유대 민족주의가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기 쉽다. 발표자인 알렉스는 여성병역거부자로 이스라엘의 병역거부, 반군사주의 운동 단체인 '뉴프로파일(New Profile)'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케도니아의 양심적 병역거부

보로 키타노스키 (Boro Kitanoski)

피스액션(Peace Action) 활동가, 병역거부자,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집행국, 발칸지역 평화·반전운동

마케도니아에서 징병시스템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징병제 속에서 조용히 고통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그 동안 줄곧 병역을 거부해왔고 그 대가로 길고 짧은 징역살이를 견뎌왔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겪어온 고난은 마케도니아 사회에서 한번도 가시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몇몇 사례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군사문제에 관한 금기를 깨고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지 종교적인 이슈로 환원되거나 혹은 일반 대중의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과 덧붙여져서 군대를 비판하는 사람들 전체가 함께 매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종교적 배경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차원에서의 병역거부자가 처음 나타난 것은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90년대 초반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펼쳐졌던 끔찍한 전쟁의 영향이 큼니다. 이 전쟁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청년 활동가 병역거부 그룹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런 움직임은 유고슬라비아¹⁾에서 갈라져 나온 모든 신생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에 ‘반군사주의 행동 그룹(Group for Anti-Military Action, 이하 GAMA)’이 마케도니아에서 병역거부와 관련한 첫 번째 대중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GAMA는 몇 년에 걸쳐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친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반군사주의 조직입니다. 구 유고의 전역에 걸쳐 조직을 마련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인 GAMA는 최근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WRI)과도 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GAMA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초점을 두긴 했지만 언제나 국제적인 반군사주의 운동과의 점점 속에서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GAMA에 있어 병역거부권 자체는 단체가 표방하는 목표들 중 하나일 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1)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구 유고)은 1991년부터 1995년에 걸쳐 전개된 끔찍한 일련의 전쟁들의 결과 6개(현재는 코소보가 추가되어 7개)의 독립적인 국가들로 분할이 되었다.

2001년은 여러 면에서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먼저, 이 해에는 마케도니아 안에서 마케도니아의 군대, 경찰력 그리고 알바니아계 게릴라들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이 발발하자 놀랍게도 당시 의회는 전쟁의 와중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병역거부권이 실제로 발현된 것은 2003년에 이르러서였지만, 어쨌든 병역거부권은 2001년부터 법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2001년, 평화활동가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외적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결국 GAMA를 비롯한 몇몇 반군사주의 활동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 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시민단체로 등록을 하기로 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01년의 전쟁이 있는 후 몇 년에 걸쳐 ‘평화 행동’에 소속된 병역거부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스코피에[마케도니아의 수도]에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정보 센터가 개설되었고 여기에는 수 백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다녀갔습니다. 병역거부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처음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에 이르러서입니다. 그 당시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대체복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대체복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징병제 폐지라는 향후 운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결과적으로 대체복무마저 거부를 해야 하는지와 같은 논의들은 병역거부 운동 내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당시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마케도니아의 운동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고 ‘너무 급진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케도니아가 독립 국가가 된 이후로 징병 기피자는 늘 전체 징집 인원의 20-30% 정도로 존재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군복무에 관해서는 가능한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독려하여 이들이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수렴됩니다.

마케도니아 병역거부 운동의 또 다른 전환점은 2004년에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병역거부자를 규제하는 법률에 변화가 생기면서 병역거부자들이 법적인 지위를 얻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 행동’은 병역거부와 관련한 정보들을 널리 전파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지역 활동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닝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지역에 무려 17개의 병역거부 정보 센터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4년²⁾에는 그 해 전체 징병 인원 7,500명 중에 1,000명 이상이 병역거부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추정 에 따르면 그 이후로도 몇 년간 병역거부자의 숫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마침내

2) 마케도니아의 총 인구가 220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17개의 병역거부 정보 센터가 생겼다는 것은 곧 정보 센터가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걸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5월 초에는 마케도니아 국방부 장관이 징병제 폐지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공표를 하게 됩니다. 당시 국방부는 ‘마케도니아 성공적인 군 개혁’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기준 충족’ 등을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병역거부자 숫자의 증가는 국방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국민의 세금만을 축낸다”는 말로 징병제 폐지 근거를 밝혔습니다. 우리의 추측에 따르면 2006년 5월 이전까지 실시된 1,2분기 징집 기간³⁾을 기준으로 그 해 전체 징집 대상자의 40% 혹은 그 이상의 인원이 병역거부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방부 장관의 징병제 폐지 법안 상정 발언이 있는 지 2주 뒤에 국회는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병역거부권이 처음 소개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 12명의 병역거부자가 군복무 거부 죄로 기소가 되었고,
- 이 12명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23 건의 사법재판 그리고 16건의 행정심판이 열렸으며
- 병역거부자들은 383일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이들 중 한 명은 무려 7번에 걸친 반복된 수감을 겪었고, 다른 또 한 명은 5번에 걸친 수감과정을 거쳤다).
- 그리고 수많은 징집 대상자들이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징집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 후 응하지 않은 죄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3) 당시 마케도니아에는 1년에 총 네 번의 징집 기간이 존재했다.

에리트리아 반군사주의 운동(EAI)

아브라함 게브레예수스(Abraham gebreyesus)

에리트리아반군사주의운동(Eritrean Antimilitarism Initiative) 활동가, 병역거부자, 난민으로 독일 망명 중.

들어가며



무엇보다 먼저 제가 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해준 한국의 형제자매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될 날이 오리라곤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심사를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에리트리아와 한국의 운동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제 이름은 아브라함 G. 메흐레팁입니다. 에리트리아 출신입니다. 현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에리트리아 아스마라 대학교 학생이던 1996-98년부터 전쟁과 평화 관련 이슈를 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 자신이 지뢰로 인해 몸을 다쳤기 때문에, 에리트리아에서는 지뢰 반대 운동을 주로 했습니다. 지뢰로 인해 저는 오른팔과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저는 1997년 오타와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지뢰 반대 활동을 국내외적으로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 덕분에 1998년에는 미국 기업인 리복으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이슈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제겐 병역거부가 무척이나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2004년, 저와 이 곳 독일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에리트리아 반군사주의 운동(Eritrea Antimilitary Initiative)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에리트리아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에리트리아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한 정보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비록 우리 에리트리아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경제적 이민이 주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저희는 지속적인 징병과 지역에서 계속되는 전쟁들이야말로 대부분의 에리트리아 젊은이들로 하여금 나라를 떠나게 하는 이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1) 에리트리아 개괄

에리트리아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에 소속된 53개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에리트리아는 ‘아프리카의 뿔’에 자리잡고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에디오피아와 서쪽으로는 수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남동쪽으로는 지부티 공화국이 있으며 동쪽 및 북쪽으로는 천 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홍해가 있습니다.

에리트리아 사회는 9개의 서로 다른 종족이 있으며 무슬림과 크리스찬 이렇게 두 개의 큰 종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수장 :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sayas Afewerki, 해방 정부 지도자로 35년 이상 권좌의 자리에 머물러옴)

인구 : 470만명

기대수명 : 56.6세

전체 인구의 3분의 2정도는 국제구호단체의 긴급식량지원에 기대고 있습니다. 에리트리아 정부는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미등록 종교 단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들 역시 탄압하고 있습니다. 수천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시민이나 군인에 대한 적절한 법률이나 사법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감된 사람들은 법적인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법정에서는 자의적 구금을 자행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나 군대의 행동에 도전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권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식민지 역사

1890년부터 1941년까지 에리트리아는 이탈리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이 이탈리아에 승리를 거두고 난 뒤로부터 10년 간은 영국이 에리트리아에서 점령을 지속하였습니다. 1952년에는 유엔의 결정에 따라 당시 하일 실라체 왕의 통치 하에 있던 에디오피아에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진) 연방의 형식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의 연방으로 속해 있던 시기에 에디오피아의 왕이 연방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리트리아 의회가 해산이 되면서 에리트리아는 에디오피아의 열네번째 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1962년부터 에리트리아가 독립을 성취하는 1991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3)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

1961년에 에리트리아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에 걸친 싸움 끝에 1991년 5월, 에리트리아 민중해방전선(Eritrean People Liberation Front, EPLF)이 에디오피아의 점령을 종식시키고 해방을 쟁취하였습니다. 약 65,000명 이상의 에리트리아 전사들과 수많은 민간인들이 독립투쟁의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리트리아의 독립을 위한 전쟁 그리고 저항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에리트리아 해방전선(ELF)과 민중해방전선(EPLF)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해방에 임박한 마지막 몇 년 동안에 에리트리아 독립을 쟁취한 민중해방전선(EPLF)에 자원한 사람들의 숫자는 11만명에 이르렀습니다(전체 인구의 3%에 해당). 마침내 국제기구들의 감독 속에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 이 때 99.8%의 사람들이 에리트리아의 독립을 지지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 5월, 에리트리아는 공식적으로 독립한 주권국가가 되었습니다.

4) 에리트리아의 군대와 징병



사와 군사훈련소의 모습

에리트리아 방위군은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육군의 규모가 공군이나 해군보다 더 큼니다. 1994년 7월부터 에리트리아 정부는 군병력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18세부터 40세 사이의 사람들이 18개월 간의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무(the duty of all citizens)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사훈련은 사와(Sawa) 방어훈련장과 킬로마(Kiloma) 군사훈련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남녀모두) 학교교육의 마지막 1년 동안에 사와 훈련장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군복무로 통합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기간 동안의 군사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 대학 입학이나 취업(군사훈련 이수가 필수 요건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군사 훈련이 끝나면 사병들은 전국 곳곳으로 파견이 되어 12개월의 군복무를 더 하게 됩니다. 2009년 현재 에리트리아는 이웃 국가이자 라이벌인 에디오피아와 군사적 분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에리트리아는 에디오피아와의 국경선 지역에 최소 30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숫자의 군병력은 국경 맞은 편인 에디오피아에도 배치가 되어 있지만 사실 에디오피아는 인구 자체가 에리트리아보다 훨씬 많습니다.

군복무를 수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듯, 에리트리아의 군대 안에서 사병들은 모병에서부터 훈련과정, 군 간부들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군 간부들

이 여군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징집된 사병들이 받는 월급은 매우 적습니다.

에리트리아 방위군은 에디오피아, 이집트, 모로코의 군대와 더불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입니다. 에리트리아의 인구수는 특히나 주변국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에리트리아 정부는 줄곧 직업군인들로는 국방력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시에 에리트리아 군대에는 약 45,000명 정도의 직업군인 그리고 계속 수가 증가하고 있는 약 25만명 정도의 강력한 예비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비 지출 : GDP 대비 6.3%(2006년 기준)



에리트리아 여군의 모습

5) 양심적 병역거부자

1998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아주 소수였으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와 같은 일부 중



교 집단에서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은 사와 군사훈련소에 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내부 온도가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들 병역거부자들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수감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감자 이름	나이	젠더	감옥	수감시점	구속사유
파울로스 이야수	37	남성	사와 캠프	1994년 9월 24일	병역거부
아이작 모고스	34	남성	사와 캠프	1994년 9월 24일	병역거부
네게데 테클마리암	36	남성	사와 캠프	1994년 9월 24일	병역거부

그들의 ‘죄’는 ‘전쟁을 더 이상 배우지’ 않기 위해서 성서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이사야 2:4, 미카 4:3).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발생한 비극적인 전쟁으로 에리트리아와 에디오피아 양국 군인 7만 명 이상이 죽은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 때 수천명의 에리트리아인들이 군복무를 거부하고 망명을 떠났습니다.

인접 국가인 수단이나 에디오피아에 있는 수천 명의 에리트리아인들이 인접국가인 수단이나 에디오피아에서 망명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들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그 곳으로 넘어간 수백명의 에리트리아인들이 망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6) 에리트리아 반군사주의 운동 (Eritrean Antimilitary Initiative, EAI)

에리트리아 반군사주의 운동 그룹(EAI)은 독일에 근거를 두고 있는 NGO입니다. EAI는 다른 정치적인 그룹이나 정당에 연루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EAI는 에리트리아의 다른 그룹이나 정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EAI는 고문이나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에리트리아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EAI는 비폭력적인 운동방식을 좇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우리의 운동의 목표에 공감하고 합

게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EAI의 대부분의 멤버들은 에리트리아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군사분쟁이 불러오는 결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EAI의 대부분의 멤버들은 징집된 군인이면서, 에리트리아 사회에서 끝없이 계속되는 군사화에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EAI는 독일 운동 단체들의 연합인 ‘커넥션(Connection)’과 함께 연대하여 에리트리아 사회에 존재하는 탈영병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이슈들을 가지고 운동을 벌이는 한편, 독일 사회와 정책결정자들이 에리트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제징병의 현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모든 형태의 전쟁과 군사적 억압들이 에리트리아와 주변 국가들의 평화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EAI는 인권 증진, 강제징병 거부권 옹호, 에리트리아 사회의 전쟁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기치 하에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평화적인 미래를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병역거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EAI는 지난 4년간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병역거부 이슈와 관련하여 중요한 성과들을 달성하였습니다. 에리트리아 국민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에리트리아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에리트리아는 지난 세기 이유야 어떠하든 계속된 전쟁을 경험해 왔습니다. 원주민 집단 사이의 모든 갈등들은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에리트리아 사회의 자연스런 한 부분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타국의 침략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킨 한 요소입니다. 지금 에리트리아에서 전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전쟁과 군사주의에 반대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에리트리아 사회에 가져다 준 것은 굶주림과 빈곤, 이주, 지뢰의 위협,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들의 고통입니다. 저는 에리트리아 반군사주의 운동의 활동이 어렵긴 하겠지만 향후 에리트리아 사회에서 좀 더 많은 운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군 모병과 반-모병: 미국내의 어려움

이반 브로이다 (Ivan Broida)

War Resisters League 활동가

미국의 군 모병을 이야기 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군 복무가 “자발적”이라는 것, 즉 강제 징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강제 징병을 실시한 것은 베트남 전쟁 동안이었고, 이 때 수 십 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터에 불려나갔다. 당시의 몇 안 되는 선택지는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에서 싸우거나 군 복무를 거부하고 징역을 살거나, 다른 나라 (대부분 캐나다로) 도망가 망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강제 징병이 폐지된 이후, 군대는 자발적인 조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것이 뜻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미국 군대를 정말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미군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홍보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지난 해 통계에 따르면 일년에 40억 달러 정도가 오롯이 군 홍보에 사용되었다. 이 수치가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홍보에 쓰는 비용을 훨씬 웃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40억으로 무엇을 사는가? 우선, 이 돈은 최근 그 “소중한/어처구니없는(priceless)” 마스터카드의 광고를 제작한 홍보 회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이 돈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TV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 시간을 사는데 사용된다. 이 돈은 또한 젊은이들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비디오 게임을 사는데 쓰인다. 이 돈은 잡지 광고, 대형 광고 게시판, 인터넷 광고, 버스 광고, 홍보 물품을 비롯, 젊은이들, 특히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사는데 사용된다.

이는 내가 간접 모병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는 젊은 층에게 군대가 멋있는 곳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군대를 방과 후에 즐기는 비디오 게임처럼, 실제로는 아무 반향이나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 간접 모병은 보다 공격적이고 조직된 형태의 직접 모병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부시 정권에서 승인된 낙오 아동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하에서, 미군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모든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결국 낙오 아동 방지법은 군에 미국 전역의 수없이 많은 잠재적 모

병 대상자들의 명단을 건네주는 것이다. 군은 학생 기록에 대한 접근권 뿐만 아니라 또한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모병 부스를 설치하는 등 고등학교와 대학 캠퍼스 내에 거의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미국의 많은 학교와 대학이 ROTC(the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고등 학교와 대학에 있는 동안 학생들을 훈련시켜 이후에 군인으로서의 길을 걷도록 하는 한 방법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모병관들은 청소년들이 많은 행사장이나 쇼핑몰에도 부스를 차리고 있다.

많은 모병관들은 정보를 구하는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는 동안 그들이 군에 들어오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왔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훈련 동안 신병에게 할당되는 학습 시간, 군에 입대할 때에 받게 되는 보너스 금액, 신병이 전투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여부 등. 심지어 몇몇 군 모병관들이 단지 군 입대를 종용하기 위해 범죄 기록을 지워준다거나 마약복용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미국의 평화 운동가들과 평화 단체들이 미군의 홍보 캠페인에 맞서 4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구할 곳은 없다. 사실상 많은 곳이 돈이 전혀 없거나 자원 활동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 모병에 반대하고자 하는 열의에서 많은 단체들과 모임들이 학교 안팎의 군대에 대항하는 창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

낙오 아동 방지법에는 학생들 그리고/또는 부모들이 학교가 군에 제공하는 최종 명단에 오르지 않도록 제외 즉 정보수집거부(opt-out) 서식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많은 단체들이 이 조항을 중심으로 모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서식에 서명함으로써 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 낙오 아동 방지법 조항 이전에도 반-모병 운동은 있어왔지만, 이 캠페인은 그것이 가져오는 전국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대대적으로 반전 운동의 최전선이 되었다. 많은 젊은이들 역시 이를 중심으로 모였고 그들의 친구들에게 정보수집거부(opt-out)를 촉구하였다.

다른 단체들은 보다 넓은 입장을 취했고, 군대만큼이나 학교내의 평화 모임에 시간을 할애하려고 애썼으나 아주 가끔 성공적이었을 뿐 대부분의 경우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들은 직접 각 주의 교육부나 학교 위원회를 찾아감으로써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다. 몇몇 모임들은 훨씬 더 성공적이었고, 연방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에 맞서며 군이 학교로 들어와 학생들을 직접 모집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시켰다.

반-모병과 별도로 또한 많은 단체들이 정부가 모병을 그만두고 교육과 일자리에 예산을 쓰도록

압박하기 위해 시위, 모병 센터의 감시, 폐쇄, 그리고 대도시에서의 대규모 행진에 참여하였다.

운동 내부에서는 반-모병 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다. 몇 년 동안 군은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나 이는 반-모병 운동의 끈기와 지속성뿐만이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폭력 때문일 수도 있었다. 불행히도,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많은 지역사회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군대가 하나뿐인 선택지가 되면서 모병자수는 늘고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자 한다. 때때로 수치들이 압도적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얻은 교훈과 경험한 수많은 성공들이 있기에 여전히 강력하고 잠재력을 가진 우리 운동 내부에는 수량화할 수 없는 성취 역시 존재한다. 이 수량화할 수 없는 성취는 중의 하나는 학교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밖에서 배포자료, 안내책자, 행사나 활동가들과 어떤 식으로든 접하게 된,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서 모병관들과 군사주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질문하게 된 모든 젊은이들이라 할 것이다.

핀란드 - 양심적 병역거부의 전통과 군사주의의 전통

시모 헬스텐 (Simo Hellsten)

핀란드 병역거부자 협회

본 발표에서는 먼저 핀란드의 병역거부의 역사를 다룬 후, 지난 2008년에 시작되어 최고의 비(非)-병역수행 활동으로 발전한 투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로는 카지 라니넨(Kaj Raninen)이 2004년에 쓴 기사 “핀란드의 군사주의”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그 이후 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라니넨의 기사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한국어로 번역⁴⁾되어 있다.

자치국가에서 “제1공화국” 까지

핀란드의 병역거부 역사는 최소 핀란드가 러시아 제국의 자치 대공국⁵⁾(러시아의 통치는 1세기 가량 지속되었다)이었던 20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02년 러시아의 징집명령에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했다. 하지만 핀란드의 병역거부는, 이것이 평화적 활동이 아닌 민족주의적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되던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아쉬움도 있다.

핀란드는 1917년, 세계1차대전과 러시아 혁명 직후 독립하였다. 이 신생 공화국은 온 나라에 군사주의의 물결이 넘실대던 1918년 핀란드내전 시기를 전후로 전 남성 시민에게 징집명령을 내렸다. 이에 국제적인 평화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세계1차대전 직후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1922년에 이르러서야 종교인들이 비무장 병역 수행을 하기 시작했다.

4) <http://wri-irg.org/node/2695>

<http://peace.jinbo.net/maybbs/view.php?db=peace&code=sosikji&n=281&page=20&mode=search&area=ctgr&key=>

5) 나폴레옹 전쟁 중에 핀란드 영토를 둘러싼 열강의 외교전이 전개된 끝에 1809년 러시아가 핀란드를 점령하였고, 대공국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하였다. 핀란드는 제1차 세계대전 말기인 1917년에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곧 이어 1926년에는 당시 핀란드 WRI 회원이었던 반군사주의 활동가 안트 페쿠리넨(Arndt Pekurinen)이 모든 형태의 병역 의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수감이 되었다. 그의 투쟁은 이후 1931년에 일어난 첫 번째 병역거부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이후 핀란드의 역사에서 병역거부 운동은 암흑기를 맞았다.

세계2차대전 당시 핀란드는 소련과 한 때의 동맹국이었던 독일 나치를 동시에 상대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무장 거부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이 시기에 병역거부에 관한 이야기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전쟁 중에 수많은 이전의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거나 처형되었다. 재판을 통한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안트 페쿠리넨(Arndt Pekurinen)도 1944년 약식 처형당했다.

“제2공화국” 과 조사위원회

전쟁 이후 비-군사적 의무가 1959년 새로이 시행되었는데, 이 때 도덕적 거부자 들 뿐 아니라 개개인의 양심을 심사하는 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는 병역거부에 관한 활동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1969년에 비-군사적 의무가 다시 한 번 개선되었다. 이 시기에 병역거부자 숫자가 크게 증가했고 군사주의적이었던 정부는 대응책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조사위원회는 보다 엄격한 방침을 내세워 비-군사적 의무 지원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종종 수감이 되기도 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에 걸친 이후 투쟁은 임시법 통과를 통해 조사위원회를 없애는데 성공했다. “렉스 필라자마키(Lex Pihlajamäki)”라고 불리는 이 임시법은 조사위원회를 해소시키고 당시 병역거부자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던 여호와의 증인들을 군면제 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제외하고는 이 임시법의 결과는 재앙에 가까웠다. 이 법은 군 복무 기간의1/3을 늘렸고 복무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군사화시켰다.

임시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시행 기간 내내 새로운 투쟁이 시작, 진행되었다. 이 항의 투쟁은 1990년에 비-군사적 의무 수행자들이 임시법의 불합리성을 막기 위한 새로운 상설법 제정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며 정점에 달했다. 감옥 안에서는 단식을 통해 이 투쟁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지난한 투쟁 끝에 병역거부 운동은 결국 지쳐서 무너지고 말았다. 1990년대 초기의 경기침체로 인해 평화 운동 역시도 약화되었다.

“제3공화국” 과 현재의 법

이렇게 축소되어 사실상 파탄상태에 다다른 조직을 1990년대 중반에 젊은 반 군사주의자들이 이어받았다. 완전 거부에 대한 관심과 다른 급진적 시각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7년 병역의무가 줄어들면서 이전 투쟁으로 보장되었던 대체복무 역시 비례적으로 줄어들자 비-군사적 의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본인 역시도 이 투쟁에 참여했는데, 이 투쟁의 방식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97년부터 2007년 사이에 두 가지의 병역의무법과 비-군사적 의무법이 제정되었다. 병역의무법은 큰 논쟁 없이 통과되었지만 비-군사적 의무에 관한 개정안은 두 번이나 의회에서 거부당했다. 이상하게도 똑 같은 개정안이 세 번째 시도 때는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운동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함과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주목을 받았는가?

핀란드의 거의 모든 남성 시민들은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핀란드 사회는 거의 완전히 군사주의화 되어 있다. 군사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치 경제적 방편으로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국방코스도 있다(이는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오른 소수의 여성들에게 군사주의를 심어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를 추진할 방법을 찾기가 힘들게 만드는 정치적 상황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정부 말고도, 산업을 장려하고 노동운동을 후원하며 주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큰 단체가 3개 더 존재한다. 이러한 주류의 힘포는 핀란드 정치용어로 ‘여론(consensus)’이라고 불린다. (누가 감히 여론에 저항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3자 체제는 징집과 무기산업, 삼림파괴와 핵무기에 강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해도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핀란드 병역거부 협회(AKL)는 작은 조직이다. 전체 구성원은 1500 정도 되고, 20-30명의 활동가/간사와 100명 가량의 활발히 참여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까지도 상임활동가는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 투쟁의 표상을 유지하기

- 완전거부
 - 시위
 - 다른 형태의 저항
- 국제적 관심 고취하기
- 국제 보고서 작성
 - 국제 단체의 지지
- 정당과 내각, 하원 의원들과의 소통
- 기본적인 의안 통과운동(로비)
- 잘못된 정보 수정
- 반대 로비에 대항하는 활동

각각의 영역에는 성공을 좌우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기본 정보

시기 선택

담론 형성

대부분의 작업은 기본적인 의안 통과운동(로비)으로 이루어졌지만, 국제적인 지지활동 역시도 수반되었다. 특히 우리는 의안 통과를 위해서 시기 선택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핵심은 여러 정당간의 힘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군사화된 사회에서 선거시기 이전의 병역거부 문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당은 30-40%의 지지를 보여야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대의 지지 또한 얻어낼 수 있다. 이로 인해 병역거부자의 수가 줄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한 정당이 권력을 잡은 이후 역시 로비에 적당한 시기는 아니다.

3+3정당 체제

핀란드에는 3개의 주류 정당과 3개의 중소 정당이 있다. 이전의 투쟁 때는 이들이 때에 따라 정치적 제휴를 꾀하곤 했다. 선거에서 승리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주류 정당들은 복잡한 게임을 한다. 한 내각에는 언제나 두 개의 거대 정당과 몇 개의 지지정당이 존재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3개의 주류 정당 중 어떤 2개의 정당이라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입법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은 정부의 공약과 그에 관한 협상 과정에 있다. 공약은 향후 4년간의 정부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준거가 된다. 사회민주당(SDP)은 원칙적으로는 가장 병역거부에 우호적이며, 따라서 다른 정당들은 협상 시 사회민주당이 병역거부에 관한 개선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정작 사회민주당은 병역거부권이 더 이상 논의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는 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표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민주당이 비-군사적 의무를 다루는 제 3정당에서 밀려나게 되면, 병역거부권과 개선법령에 대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권리는 더 이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투쟁을 통해, 우리는 국회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 보다 내각의 정치적 연립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공약들을 상대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각료들이 최선의 방식으로 공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이다. 일단 내각에서 다수당이 잘 자리를 잡으면, 법령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친구들로부터의 도움

병역거부 문제를 정치적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부각시켜야 한다. 핀란드 정치는 이중적인 게임이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좋은 사람들’ 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수자들의 권리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적 압력을 야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정책 수립자들이 이를 막기 전에 국제 단체들이 병역거부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국제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완전거부를 중심에 두어야 했다. 이래야만 대립 없이 전통적인 저항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UN인권위원회(UNCHR3)나 유럽평의회(COE4)에서 병역거부를 의제로 삼게 하기 위해서는, 시위보다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미 의무면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서 2002년 사이에 수감 병역거부자(29-80세)는 175%나 증가했다. 병역거부 선언에 있어서의 차별적 법률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했다.

이렇게 투쟁을 가시화 시킴으로써, 1999년에는 국제 엠네스티가, 2001년에는 유럽평의회 인권 위원회가, 그리고 마침내 2004년에는 UN인권위원회와 유럽연합 사회위원회의 성명서를 얻어냈다. 특히 2004년에는 WRI의 역할이 컸다. 또한 비공식적이더라도 국제적인 지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병역거부자의 이미지

우리의 투쟁이 2006-2007년 최종 국면에 다다랐을 때는, 단순히 법 개정을 위한 타당한 논의를 모아내는 것 만으로는 부족했다. 우리는 이제 ‘병역거부자’라는 단어의 의미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야 했다. 특히 시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은 논리적인 이유 보다는 감정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우리는 병역거부가 반정부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사실 많은 경우 이는 실제로 반정부 행위이고, 이에 대해 우리는 완전히 솔직하지는 않았다).

개정 법령 통과를 위한 최종 국면에서, 우리는 비-군사적 의무의 군사훈련에 대해 수정을 거쳐야 했다. 제안된 개정 법안은 위기 상황의 병역거부 역시도 허가하고 있었다. 이는 시민 방어의 보조적 역할(전선에서의 인적자원을 자유롭게 하여 군사적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물질적 후원과 인도주의적 원조)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법안의 내용을 군사화 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요구의 결과였다. 우리는 이 과정에 끼어들어서 1986년 렉스 필라자마키(Lex Pihlajamäki)의 개정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군사 훈련 과정에 다시 한 번 방문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갔던 것 그대로였다. 국방 전문가들은 제대로 훈련 받지 않은 병역거부자들이 복잡한 시민 방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병역거부자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했다. 우리는 이전 버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더 완화된 훈련 과정을 제안했다. 이 새로운 과정은 일상 방어, 문화적/환경적 방어, 기본 시민 기술의 3가지로 나누어졌다. 그 명칭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실상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했다.

그 성과는 모든 이들을 통해 입증되었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의 마지막 반대 여론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의도치 않게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얻게 되었다. 병역의무가 썩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는 이전의 낙인 찍힌 대체복무가 아닌 “일상 방어” 라는 그럴듯한 선택지를 갖게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법안은 2007년 12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고 2008년 1월 발효되었다.

비-군사적 복무 결의안 28.12.2007/1446

새로운 비-군사적 복무 결의안에는 분명한 진일보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정착되지는 않았다. 복무 기간의 경우 6-9개월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에는 12개월이다. 위기상황에서의 병역거부 역시

인정은 되지만, 군에서 복무를 하다가 위기 상황에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 위원회와 대면해야 한다. 또한 UN인권위원회의 권고와는 달리 병역거부자들은 비-군사적 복무 기간의 1/2을 여전히 감옥 안에서 보내고 있다.

이 모든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은 핀란드 역사 상 가장 훌륭한 비-군사적 복무 결의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이 발효된 이후로도, 우리는 과도적 조항에 관한 투쟁에서 한번 더 승리했다. 과도적 조항에서는,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과 아직 받지 않은 사람에게 다른 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 차이는 33일이었고, 우리는 이에 착안하여 완전거부자의 33일간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과도적 조항은, 국회 회기 내에 법을 수정할 경우 더 중도적인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형법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 33일을 거부하는 395일 복무자들을 꽤 모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승리했다. 대부분의 지방법원은 형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복무 기간은 362일 이었다. 이로 인해 병역거부자들도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이후 헬싱키의 항소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래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약속 조항 이행에 대해 UN인권위에 다음 보고를 보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지금, 비-군사적 복무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새로운 법의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병역거부에 관해 남아있는 다른 도전 목표들은 조금 바뀌었다.

완전거부자

오늘날 완전거부자의 숫자는 2000년 중순 때 만큼 많지는 않지만,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언제나 그래 왔듯이. 새로운 비-군사적 복무법은 완전거부자들의 수감 기간을 197일에서 181일로 줄여 주었다. 하지만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고, 이에 관해 라니넨(Raninen, 2004년도 핀란드 병역거부자, <http://wri-irg.org/node/2691> 참조)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완전거부자들은 무조건 수감된다. 수감 기간은 간단한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남은 일 수를 대체 복무 기간으로 계산하여 그 절반을 감옥에서 산다. 만약 거부 이전에 복무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 수감 기간은 197일이 된다. 완전거부자들의 수감 생활은 개방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곳에서는 주중에 감옥 밖에서 노동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 완전거부자들은 폐쇄 교도소로 이송되기도 하는데, 이 곳에서는 말 그대로 쇠창살 뒤에서 수감 기간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보내야 한다. [...중략]

몇몇 완전거부자들이 18세가 되던 해 징집 등록 자체를 거부한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핀란드 법에 따르면 완전거부는 징집대상자가 등록이 되어 복무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완전거부자는 벌금과 함께 등록 명령을 받게 된다.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이 재부과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몇 년이고 지속된다.

이제껏 두 번 사용된 적이 있는 완전거부자가 취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은, 나라를 벗어나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 달아나서 공식적으로 신념 박해에 의한 망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망명을 했던 두 핀란드인 완전거부자 중 한 명은 현재 벨기에에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완전거부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편견

병역거부에 관한 또 다른 이슈는 복무 전 후에 발생하는 편견이다. 이는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 문제인데, 이러한 편견 때문에 고용주들과 사업자들은 법을 위반하기까지 이른다.

법률상으로는 군복무자와 비-군사적 복무자들 모두 동등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이나 행사 입장료 할인, 혹은 다른 여타의 할인 등이 그 예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 법은 흔히 위반되며 때때로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를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공식/비공식적으로 사회적 용역(서비스) 제공자와 연락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용역에 대한 차별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지원자에게 군복무 경력을 요구하는 불법 구인광고도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필요 절차를 확립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책임자들을 확보했다. 서류상으로 차별당하지 않은 경우는 증명하기가 더 힘들다. 하지만 이 역시도 노동 시장이나 근로지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비슷한 종류의 것이다.

핀란드에서의 병역거부권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은 말하자면 정체기이다. 우리는 개개인을 기반으로 완전거부자 문제에 대해 활동하고 있지만, 전반적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다. 핀란드 병역거부 협회(AKL) 내에서는 현재 다른 영역의 군사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우리는 나토와 무기제조에 관해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역사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로 1980년대 부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시작되었다. 원래는 '세계병역거부자회의(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Meeting, ICOM)'라는 병역거부자 네트워크에서 조직했던 것인데 '세계병역거부자회의'가 1995년 이후 더 이상 모임이 진행되지 못하자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이 이를 이어서 조직하고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세계병역거부자 회의'는 20여개 나라 100여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던 회의였으며 1981년에서 1997년 사이 진행되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현재 전 세계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단일한 액션을 취하는 날로 정착 되었다. 전 세계의 병역거부 운동그룹들은 5월 15일을 기념하여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공개토론회, 철야농성, 시위, 각종 행동들, 세미나, 캠페인 등과 같은 행동이 벌어진다. 최근에는 각 국가나 지역의 병역거부 운동그룹들이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그 나라의 구체적 이슈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동행동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 날의 의미는 아직까지 병역거부가 단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이며 따라서 이러한 국제연대는 병역거부 운동에 특별한 힘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 직업군인들의 병역거부, 2007년 콜롬비아, 2006년 미국, 2005년 그리스, 2004년 칠레 및 라틴아메리카, 2003년 이스라엘 등 매년 초점이 되는 국가나 의제를 설정해서 함께 연대하고 경험을 나누는 행사들이 매년 진행되어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이 약속을 사실상 백지화 시키면서 한국이 2009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초점국가로 선정되었다. 현재 5월 15일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행동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특정 국가나 이슈의 병역거부 투쟁을 지원하는 국제비폭력직접행동의 전통을 세워나가고 있다.

2009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행사개요

㉔ 5월 10일 ~ 14일 : 비폭력트레이닝 (일산한강감리교회)

㉔ 5월 15일 : 비폭력직접행동 (서울시내 모처, 비폭력트레이닝 기간에 구체적인 계획 확정될 예정)

㉔ 5월 16일 1시 : 국제컨퍼런스 '전 세계 병역거부운동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 3층 대강당)

7시 : 평화콘서트 '멀리터리 인 더 시티' (기독교회관 2층 강당)

비폭력트레이닝

*일시 5월 10일(일) ~ 14일(목) *장소 일산 한강감리교회

세계적으로 수대에 걸쳐 사람들은 별다른 트레이닝 없이 성공적으로 비폭력직접행동을 실천해왔다. 비폭력행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폭력트레이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또 부적절한 트레이닝은 오히려 비폭력행동 참가자들을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거꾸로 괜한 불안감에 빠지게 하여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비폭력트레이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으며 적절한 트레이닝은 비폭력직접행동을 보다 재치 있고 창의적으로 기획할 수 있게 하며 직접행동의 유용성을 평가하거나 실행에 옮길 방법들을 궁리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또 비폭력직접행동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에 의해 실행되었을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있어 비폭력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이 구성원들 사이의 단결을 돕고 앞으로 벌어질 비폭력행동의 밑그림을 그려 이를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비폭력트레이닝은 직접행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포함할 수 있다. 직접적인 법적 정보를 포함해 법적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에서부터 역할극(그룹 내에서 토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상 가능한 상황을 연기해 보는 것)까지 그 범위는 다양할 수 있다. 각각의 직접행동과 그룹이 트레이닝 세션에 요구하는 것이 다를 것이므로 “올바른” 트레이닝 방법이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직접행동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룹 구성원들이 서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번 2009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비폭력트레이닝에서 다뤄질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날짜	오전	오후	저녁
10일			환영인사 소개
11일	아젠다 점검 한국 병역거부운동 소개 병역거부·비폭력 운동 경험 나누기 (소그룹토론)	그룹 발표 상황분석	워크샵 1. 미군주둔과 여성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두레방

12일	직접행동 목표 설정 직접행동 가능 장소 소개 + 논의	그룹 토론 + 직접행동 브레인스토밍	직접행동에 관한 결정 시작
13일	전날과 이어서 직접행동 계획 토론 + 행동에 관한 공동결정 세부적인 직접행동 계획 세우기	직접행동 역할 정하기 시나리오 개발 직접행동 필요한 물품들 준비	워크샵 2. 한국 군사기지와 풀뿌리 운동 파주 무건리 + 제주 강정마을
14일	직접행동 훈련 및 역할극 역할극에 따른 평가	역할극 평가를 바탕으로 행동 점검 / 마지막 준비와 시나리오 역할극 /법적권리 브리핑	직접행동에 필요한 준비와 최종점검

비폭력직접행동

*일시 5월 15일(금) 12시 ~ 2시 *장소 서울 인사동 북인사마당

발랄하고 상징적인 퍼포먼스

* 목표 :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의 병역거부자의 현실을 알리고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정부를 규탄한다.

#1. 서너 명의 병역거부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국가의 명령으로 군인들, 병역거부자를 가두고 감시한다.

#2. 3평 좁은 방에 6명이 생활해야만 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 1년 6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렇게 감옥에서 젊은 날을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어언 13,000여명에 다다르고 있다.

#3.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2MB에게 묻는다. ‘한국은 왜 아직까지도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가둬 놓는 겁니까?’ 2MB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국민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적 합의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시기상조, 불가능’... 어이없는 대답만 늘어놓고 있다.

#4. 한국의 유력언론 ‘MEETCO’ 5월 15일자 ‘2MB 반기문에게 똥침을 놓다.’는 기사에 따르면 낮부끄러워서 여행을 못 다니겠다는 한국인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평화콘서트‘밀리터리 인 더 시티’

*일시 5월 16일(토) 7시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

㉔ 목적

- 2009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에 온 각 국의 병역거부 활동가들과의 문화적 교류
- 한국의 군사주의에 대한 유머 넘치는 고발과 성찰
- 노래와 영상과 패션쇼 등을 통해서 보다 대중적으로 위의 문제의식을 사람들과 나눔

㉔ 오프닝

공연 - 시와 (인디포크뮤지션)

퍼포먼스 - 세계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을 표현

㉔ 1부 - 병역거부, 한국

상황극 - 감옥에 수감된 병역거부자의 상황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군사주의(위계질서, 서열)를 드러냄

토크쇼 - 병역거부자 김훈태, 한겨레 신윤동욱 기자, 대체복무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의 병역거부자 등 이야기손님을 모시고 한국 사회의 병역거부에 대해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나눔

노래공연 - 길바닥평화행동

㉔ 2부 - 군사주의, 세계

상황극 - 학교와 군대와 감옥을 비교하며 획일적인 군사주의 문화를 드러냄

패션쇼 - 각 국의 참가자들이 자기 나라의 상징적인 의복을 입고 나와서 각 국의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비교

영상 -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비폭력직접행동에 대한 영상

㉔ 엔딩

참가자들의 합창

엔딩공연 - 실버라이닝 (비폭력주의 힙합그룹)

㉔ 후원 NCCK정의평화위원회

주관단체 및 해외참가자 소개

④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http://corights.net>

2002년 2월 4일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었다. 그 이후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인권차원에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알려내는 활동,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대국회 활동, 병역거부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수집 및 각종 연구 활동,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상담 및 병역거부 수감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주요연혁

- 2002년 4월 2일 : UN인권위원회 참가, 각 국 대표단과 NGO에 한국 상황 알림.
- 2003년 2월 7일 ~ 9일 : 대학생 및 군 입영을 앞둔 젊은이 대상 병역거부 학교 개최
- 2003년 3월 11일 ~ 13일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한국의 현황과 전망” 국제회의 개최
- 2003년 11월 21일 : 현역 이등병 강철민 씨 이라크 파병 반대 병역거부, 이후 기독교회관 708호에서 일주일간 농성 돌입
- 2004년 4월 60차 유엔인권위원회참가, 각 국 대표단과 NGO에 한국 상황 알림
- 2005년 5월 26일 ~ 6월 4일 병역거부 자료전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 2005년 6월 26일 ~ 6월 29일 동북아시아의 평화 국제세미나 개최
- 2008년 7월 25일 : 현역 전경 이길준 씨 양심선언, 이후 신월동 성당에서 4일 농성
- 200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참가, 각 국 대표단과 NGO에 한국 상황 알림

연대회의 구성단체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도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도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 www.wri-irg.org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 속에서 촉발된 반전운동이 모태가 되어 발전한 비정기구로서, 1921년 “파코(Paco)”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1923년에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35개국이 참여하고 78개 지부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선언문은 각각의 참가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종류의 전쟁도 지지하지 않으며, 전쟁을 유발하는 모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모든 그룹들은 평화주의와 반군사주의를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 그들은 투쟁 방식 역시 비폭력을 지향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이 같은 투쟁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왔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설립 이후, 징총거부로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군복무에 반대하는 이들을 지원해왔다. 현재에도 참전을 거부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접촉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㉔ 해외참가자 명단

- 스페인 : 줄레네 에이그렌(Julene Eiguren) / 'KEM-MOC(Movement for Conscientious Objection Basque Country)' 활동가, 병역거부자, 무기거래 반대행동 등
- 핀란드 : 시모 헬스텐(Simo Hellsten), 앙피 시필라(Antti Sipilä) / ‘핀란드병역거부자연합(Un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Finland) 활동가, 동티모르 관련 활동
- 영국 : 안드레아스 스펙(Andreas Speck)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병역거부 캠페인 활동가
줄리안 딩크그레페(Julian Dinkgreffe) / 현재 독일 대체복무로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에서 인턴활동 중.
- 마케도니아 : 보로 키타노스키(Boro Kitanoski) / ‘피스액션(Peace Action)’ 활동가, 병역거부자,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집행국, 발칸지역 평화·반전운동
- 미국·푸에르토리코 : 이반 브로이다(Ivan Broida) / ‘정의와 평화를 위한 푸에르토리코 캐리비안 프로젝트(Caribbean Project for Justice and Peace in Puerto Rico)’활동가, ‘전쟁저항자연맹(War Resisters League)’멤버

- 에리트리아 : 아브라함 게브레예수스(Abraham gebreyesus) / '에리트리아반군사주의운동(Eritrean Antimilitarism Initiative)' 활동가, 병역거부자, 난민으로 독일 망명 중.
- 이스라엘 : 알렉스 파루신(Alex parushin) / '뉴프로파일(New Profile)' 활동가, 여성병역거부자

④ 후원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 / NCK정의평화위원회(www.kncc.or.kr) / 한강감리교회(www.cychurch.net)

Conscientious objection in Republic of Macedonia

Boro Kitanoski | Peace Action, also on the WRI Executive, CO , Peace/anti-war movement on the Balkans

The first idea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tarted to emerge in the public in Macedonia in the late 1990s. Until then, silent martyrs of the military system were almost only Jehovah's Witnesses. Many members of this community rejected to perform the obligatory military service and were continuously being sentenced to various jail sentences. Some of them were sentenced few times repeatedly. But, Jehovah's Witnesses' stories of struggle were rarely ever present in public. And even if some case did broke the public silence over army matters it was easily interpreted as a solely religious issue and general public's religious intolerance was used to denounce the arguments of the people against the military.

So, the first ideas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military service, which can be also based on other grounds than religion started to emerge in the late '90s. It was mostly present within the new young groups of activists which started to organize themselves after the terrible wars of the early '90s on the territory of former Yugoslavia⁶). It spread very quickly in all newborn countries that come out of Yugoslavia.

The first public actions in Republic of Macedonia were carried out by GAMA (Group for Anti-Military Action) in 1998. GAMA was informal group of antimilitarists which was very active for couple of years. GAMA networked very well in the region of former Yugoslavia and lately became associated to WRI. GAMA's main focus was still conscientious objection, but it was always approached through a prism of the global antimilitarist struggle. It was never a goal in itself.

6) Socialist Federative Republic of Yugoslavia split up in 6 (now it is 7 including Kosovo) independent countries through a terrible set of continuous wars in the period of 1991 – 1995.

Year 2001 was the breaking point in several ways. Firstly, a war emerged inside Macedonia between Macedonian military and police forces and ethnic Albanian guerrilla. Then, surprisingly, in the new Defense Law adopted by the Parliament (in the middle of the war), the right for conscientious objection was introduced. Sure it was impossible to exercise it until 2003, but at least it was there. And at last – the situation was extremely difficult for peace activists in general, so a decision was made to join GAMA with few other antimilitaristic groups which were active at the time and to form Peace Action which was registered as association of citizens.

In the years after the war, conscientious objectors in Peace Action developed strong campaign. An information off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as open in Skopje⁷⁾. and few hundreds of conscientious objectors went through the office. The first CO that received a recognized legal status of a conscientious objector happened in 2003. At that time, there was a substitute civilian service availabl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discussion whether to accept or not the substitute service as a step forward to the abolition of the obligatory military service was always present within the CO movement.

Active COs were still isolated in the general activist surrounding in Macedonia and were considered as ‘too radical’. Although, throughout the whole history of independent Macedonia, the draft evasion to the military service was always around 20-30%. We were fully aware that there are much more people with similar ideas when it comes to the military service, the challenge was how to encourage them to make a public stand on it.

Another breaking point happened in 2004. The new changes in the regulations for COs made the situation even more difficult to get a legal recognition of the status of a CO. Peace Action answered by spreading the knowledge: trainings were made for many local groups of activists all around the country which resulted in 17 local info points established in different towns⁸⁾. This action resulted in having over 1.000 declared COs in 2004 (out of a full number of

7) The capital of Republic of Macedonia

8) Considering that the whole population of R. Macedonia is 2.2 million, 17 info points for COs literally covered the whole territory.

conscripts of around 7.500). In the next couple of years, according to our estimations, the number of declared COs was in a constant rise. Finally, in early May 2006, the Minister of Defense announced that he will propose to the Parliament to abolish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because of (among other ‘successful reforming of our great army’ and ‘meeting NATO standards’- stuff): ‘the constant rise of the number of COs which do not contribute to our county’s safety at all, but just spend our money instead’. According to our estimations, the number of declared COs in the first 2 army call-up shifts⁹⁾ until May 2006 was around 40% and rising. Two weeks after, the Parliament accepted the abolishment of the military service.

According to our data, in the period between 2001 (when the right for CO was introduced in the law for the first time) and 2006:

- 12 COs were charged for refusing to serve to the army;
- 23 Court and 16 administrative cases were held against these 12 COs;
- COs spent 383 days in prison (one of them 7 times repeatedly sentenced to prison, another one 5 times);
- Endless number of court and administrative cases on various grounds related to non-acceptance of the army call up papers, or not responding to them later.

9) There used to be totally 4 army call-up shifts per year.

Eritrean antimilitarist initiative

Abraham Gebreyesus Mehreteab | Eritrean Antimilitarism Initiative, desertion and conscientious objection in Eritrea, refugees

Introductio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happiness to get such a wonderful invitation from you, my Korean brothers and sisters, to attend this seminar. In the past it has never come to my mind that one day I could attend a seminar in South Korea. But I found that if you work strongly on your interest, it can happen.



My name is Abraham G. Mehreteab from Eritrea. I live now in Frankfurt Germany. I have been engaged in the issues of war and peace since I was a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Asmara in Eritrea in the 1996-98. As I am a landmine survivor, I was mainly working against landmines in Eritrea. Due to landmine, I lost my right arm and left eye. I was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mpaigner for the prohibition of landmines until the Ottawa treaty of 1997. I received a Reebok human right award in 1998 from a US company for my work. But now I am mainly working on issues of Conscientious Objector. It was a new concept for me when I was introduced it in Germany. In 2004 me and my friends here in Germany decided to start the Eritrean Antimilitary Initiative. We have been trying to show to others who have little knowledge about the situation in Eritrea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relation to Eritrean who are objecting the military service. Although our country Eritrea is a poor one and the issue of economic migration is a valid one, but we believe that for most of the young Eritreans the cause of their migration is the unending military recruitment and the wars going on in the region.

1) ERITREA

Eritrea is one of the 53 African states of African Union. It is located on the

Horn of Africa. To the South-West is Ethiopia and West is The Sudan. To the Southeast is Djibouti and to the East and North is the Red Sea which covers more than one thousand kms.

The Eritrean Society is composed of nine Ethnic groups and two measure religious groups- Muslim and Christians.

-Head of state and government : Issayas Afewerki (more than 35 years in power as a liberation leader and government)

-Population : 4.7 million

-Life expectancy : 56.6 years

Two-thirds of the population remains dependent on international emergency food aid. The government does not allow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independ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r unregistered faith groups and tolerated no dissent. Thousands of prisoners of conscience are held in prison. There is no recognizable rule of law or justice system, civilian or military. Detainees have no means of legal redress and judges are unable to challenge or question arbitrary detentions or government or military actions violating human rights. Constitutional and legal protections of human rights are not respected or enforced.

2) Colonial history

From 1890 to 1941 Eritrea was an Italian colony. When the British defeated the Italians in Africa, they took over Eritrea and administered it for 10 years. Following the decision by the UN, Eritrea was federated to Ethiopia in 1952 under the rule of King Haile Selassie, with certain autonomy. However, during the federation with Ethiopia, the king of Ethiopia violated the federal system. Soon after the Eritrean parliament was systematically dissolved, Eritrea was annexed to Ethiopia and became the fourteenth province of Ethiopia from 1962 until its liberation 1991.

3) Armed struggle for independence

In 1961, an armed struggle for independence began. Eritreans fought for thirty

years, and in May 1991, the Eritrean People Liberation Front (EPLF) liberated Eritrea from the Ethiopian occupation. It is recognized that more than 65,000 Eritrean fighters and tens of thousand civilians died during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During the war for Eritrea's independence, the rebel movements the Eritrean Liberation Front (ELF) and the EPLF used volunteers. In the final years of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the EPLF, which liberated the country, ranks grew to 110,000 volunteers (some 3% of the population). An internationally supervised referendum was carried out, and 99.8% of Eritreans voted for independence, and Eritrea became an independent and sovereign state in May 1993.

4) National service and military in Eritrea

The Eritrean Defence Forces (EDF) are composed of three branches: Air Force, Army, and Navy. By far the Army is larger than the Air Force and Navy. Since July 1994 the government of Eritrea has been recruiting Eritreans for military service. According to the proclamation issued by the government, it was the duty of all citizens between the age of 18—40 to carry out the National Service for 18 months. Military training is given at the Sawa Defence Training Centre and Kiloma Military Training Centre. Students, both male and female, are required to attend the Sawa training centre to complete the final year of their secondary education, which is integrated with their military service. If a student does not attend this period of training, he or she will not be allowed to attend university - many routes to employment also require proof of military training.



Sawa military training centre

After military training, the National Services are dispatched to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and serve for 12 months.

As of 2009, Eritrea is embroiled in a military stalemate with its neighbour and rival, Ethiopia. It is estimated that Eritrea maintains a force of at least 300,000 soldiers on the border with Ethiopia. While this matches the Ethiopian side, it is done so at considerably greater proportionate expense, given the far larger

population from which Ethiopia is able to draw.

As many of the participants of the National Service witness, participants are brutally mistreated in the whole process of recruitment, training and in the actual service by the military officers. There appeared sexual mistreatment and harassment for women by military officials in the army. The salary for National Service conscripts is typically very low.

The Eritrean Defense Forces are one of the largest in Africa alongside Ethiopia, Egypt & Morocco. The size of Eritrea's population is small, particularly when compared to its neighbors. The government insists that a fully career soldiers would not be adequate to meet the nation's defense needs. During peacetime the military of Eritrea numbers approximately 45,000 with a reserve force approximately 250,000 strong and growing.

Military expenditures 6.3% of GDP (2006 est.)

5) Conscientious Objectors

Until 1998 the number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s was very limited to only some religious groups such as the Jehovah Witness. In this case many Jehovah Witness opposed to go to Sawa the military training centre. All of them were imprisoned in containers concentration camps which reaches 40 degree centigrade heat. Three of these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n prison for well over 15 years, since 1994.



Name of Prisoner	Age	Gender	Prison	Date of Imprisonment	Reason for Arrest
Paulos Eyassu	37	male	Sawa Camp	September 24, 1994	Conscientious objection

Isaac Mogos	34	male	Sawa Camp	September 24, 1994	Conscientious objection
Negede Teklemariam	36	male	Sawa Camp	September 24, 1994	Conscientious objection

Their “crime” is taking literally the Biblical directive not to “learn war anymore.” (Isaiah 2:4, Micah 4:3)



Women soldiers in Eritrea

After the horrific war in 1998-2000, which claimed for the deaths of more than 70.000 soldiers from Eritrea and Ethiopia, the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creased dramatically. At this time, there are thousands of Eritreans who objected the military service and are trying to leave their country and live in exile.

Besides the thousands Eritreans who are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like Sudan and Ethiopia, there are hundreds of them also in German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seeking political asylum.

6) Eritrean Antimilitary Initiative

The Eritrean Anti-military Initiative (EAI)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ased in Germany. The Initiative sees itself as an antimilitarist or anti-war organization independent of any party politics. The Initiative is independent from any Eritrean organization, political or otherwise. EAI fights for the concerns of the Eritreans Conscientious Objectors who have been tortured and mistreated in prisons. EAI advocates for a non-violence way of struggle and is struggling to be a voice for the voiceless. EAI is open to all individuals or groups who want to be engaged in our initiative and work toward common aim. Most members of EAI witnessed the results of every military dispute in the country and the region. Most of the members were part of national service and objected the non-stop militarization in Eritrea

The Eritrean Antimilitaristic Initiative, in cooperation with Connection (A Germany organization and others) works to promote the issues and concep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military deserters among the Eritrean community and provides the whole picture of the forced recruitment situation in Eritrea at this time to German community and decision makers.

The EAI believes that all forms of war and military oppression are hindering the peaceful development of Eritrean and the countries in the region. It works for a lasting peace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refuse forced recruitment, militarization and war in Eritrea. EAI advocates for a peaceful future and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which the members of the EAI see as an essential part of a peaceful solution.

EAI has been very active in last four years and accomplished a number of very important tasks related to Conscious Objectors. There is no future for Eritrean and Eritreans unless the issue of peace and war could not be taken in to account seriously by politicians and the people themselves.

Conclusion

Eritrea has been in war for the last centuries on different reasons. All conflicts within the native people were solved by military means. War has been part of the culture of the society. Moreover, the coming of colonies aggravated the situation. The right to oppose war was unthinkable for the people. But nowadays people are waking up and opposing war and militarism. The result of war has been hunger, impoverishment, displacement of people, land mine hazards and abuses for women and vast suffering of children and whole civilians. It is our belief that the Eritrean Antimilitary Initiative is an important initiative to start the difficult and important work in the future.

Military recruitment and counter-recruitment: a challenge within the United States

Ivan Broida | War Resisters League

When talking about military recruitment in the United States, one has to keep in mind one major detail: contrary to Korea, military service is “voluntary”, that is, there is no conscription. The last time the United States had an enforced conscription was during the Vietnam War Years, when hundreds of thousands of men were called on to fight. The few options back then were to fight in a war that had claimed millions of lives, refuse to serve and face jail sentence or flee the country and ask for asylum elsewhere (mostly to Canada). After conscription was abolished, the armed forces were turned into an all volunteer body. But, what does that mean? Can it really be called voluntary?

The US military has an annual advertisement budget into the billions of the dollars. The last figure was put in the range of \$4 billion dollars to spend in advertising alone in one yea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at figure is way above what most private companies spend on advertising, we are talking about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What does \$4 billion buy? For starters, it buys the services of the advertising agency that created the now famous “priceless” Mastercard commercials. It also buys ad time during television programs targeted at young people. It buys video games also targeted at young audiences. It buys magazine ads, billboards, internet ads, bus banners, swag and anything else that can be marketed to young people, especially males.

This is what I call indirect recruitment. It’s a way to make the Armed Forces look cool to a younger generation. They make it look like a video game, like something you do on an afternoon after school without any repercussions or consequences. But, this indirect recruitment wouldn’t be as effective if it wasn’t complemented by more aggressive and organized forms of direct recruitment.

Under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approved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the US military has the right to all of the federally funded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s. Essentially No Child Left Behind gave the military an endless list of potential recruits all over the United States. Additionally to having access to student records', the military also has an almost unrestricted access to the campuses of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allowing it to set up recruitment tables in high traffic areas. Also, many schools and universities in the US have a program called ROTC, the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 which is a way to train students during high school and college for an eventual military career. Besides schools, military recruiters also set up tables at malls and at events where there are a lot of youth.

During the face to face contact, many recruiters have been found to explicitly lie to people looking for information before making a decision to join the military. Some of those lies include: the time allotted for the recruit to study while training, the amount of money they get as a bonus for signing into the military and the issue of whether the recruit will see combat or not. Some military recruiters were even caught on camera lying about wiping criminal records clean and helping the potential recruits pass drug tests just to get them to sign up.

Peace activists and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don't have anywhere near \$4 billion dollars to counter the advertising campaigns of the US armed forces. In fact, many don't have any money at all and rely on volunteer work and grants. But the motivation to oppose military recruitment allowed many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to come up with creative solutions to having the military in or around the schools.

Inside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there is a provision that allows for students and/or their parents to sign an exclusion or opt-out form so as to not appear in the final list given to the military by the schools. Many organizations rallied around that provision and started campaigns urging for students to "opt-out" of the military by signing the form. Even though there had been counter-recruitment actions before the NCLB provision, it came to the forefront of the anti-war movement in a big way because of the impact it was creating

around the country. Many young people were organizing around this as well and were trying to urge fellow students to opt-out.

Other organizations took a broader stance and tried, few times successfully and many time unsuccessfully, to get equal time for peace groups inside the schools as for the military. They did this by going directly to the school board or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their respective states. Some communities were even more successful and outright banned the military from entering the schools and directly recruit the students, challenging the assertion that the federal funding would stop.

Apart from counter-recruitment, many organizations also engaged in protests, pickets and shutdowns of recruiting centers and mass marches in large cities to pressure the government to stop recruiting young people and start spending money on education and jobs.

Inside the movement there has been a constant debate about the effectiveness of counter-recruitment. For a couple years the military wasn't meeting its recruitment quotas and this could've been attributed to the violence in Iraq and Afghanistan as well as the persistence and tenacity of the counter-recruitment movement. Sadly, as the economy continues to deteriorate and the military becomes the only option for a lot of youth in many communities, the recruitment numbers have risen.

I would conclude by saying that even though sometimes numbers can be overwhelming, there are also unquantifiable achievements inside a movement that was very strong and still has potential because of the lessons learned and the many successes experienced. Those unquantifiable achievements include all the young people that were somehow reached by a flyer, a brochure, an event or an activist outside their school or community and made them think about and question the role of the recruiters and militarism in their lives.

History of CO in Greece and Demands of the Association

Angelos Nikolopoulos | Greek Associa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The conscientious objectors and their treatment

The institution of conscription is introduced in Greece in 1911, a short while before the involvement of the country in a series of consecutive wars (the Balkan Wars, the First World War, the campaign to Ukraine, the Asia Minor campaign). The duration of this involvement (more than one decade) and the consequent exhaustion of the soldiers – many of whom were enlisted in 1911 and were discharged in 1923 – resulted to the first mass desertions from the Greek army.

For the next 60 years the conscientious objectors come exclusively from the Jehovah's Witnesses. The military courts were convicted them to very heavy sentences, and as a result of successive convictions they were usually imprisoned for 10 to 15 years in military prisons. During the Greek Civil War certain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In September 1977, on the last day of the Parliamentary sessions, the Karamanlis government of New Democracy (right party) passes law 731, under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specially of the Council of Europe. According to this law, those who refuse to be drafted for religious reasons can choose between serving a four-year unarmed service in a camp and getting imprisoned for four years in military prisons, being exempted afterwards from any new call to serve. Two years before, during the constitutional reform of 1975, the proposal of PA.SO.K.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 for the institution of an alternative civil service for those who refuse to serve their military service for religious or ideological reasons had been rejected by the ruling party of New Democracy.

Although the movement for the respect of the soldiers' rights was particularly active, the issue of non-religious conscientious objection remained a taboo for the political parties and the youth movement, since the democratization and control of the army, as the interference of the people in the secluded sectors of the system, were considered a major aim which required the participation of the "politically conscious" citizens in the existing institutions.

The political questioning of some of these institutions and especially of the obligatory military service initially gains ground between the emerging ecological teams, in the circles of draft-evaders and in a part of the anti-authoritarian movement. The first occasional reports on the subject occur around 1982-1984, while the "Ecological Newspaper", as well as the exceptional at that time publication of the magazine "I Deny", come to give voice to and to direct the newborn movement of support. The movement develops international relations, the action events and the articles multiply, a relative cohesion is achieved and the direct objectives do not cause conflict yet: the release from prison of the Jehovah's Witnesses, the cease of the prosecutions, and the institution of an alternative civilian social service.

In 1986-87 the first non-religious conscientious objectors appear. Their statements are subversive, they have a humanitarian character, they do not limit the refusal in some kind of army or political system, and they promote non-violence and social disobedience. In March 1987, 28 year-old Michalis Maragakis, the first one who made his refusal to enlist publicly known, is arrested, and in June he is convicted to a four-year imprisonment sentence.

The government persists in its hard attitude, despite the impressive movement of support that is developed in Greece and internationally. The lack of political will is covered by estimates on the non-compliance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alternative service with the constitution. After his appeal hearing in February of 1988 the sentence of Maragakis becomes 26-month imprisonment. On the 22nd of the same month he begins a hunger strike which stops the first of May when the government, alarmed by the international support, states that they will examine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under a positive prism.

On April 12th of the same year conscientious objector Thanasis Makris is arrested and goes on a hunger strike in solidarity with Maragakis. On May 26th he is convicted to a five-year imprisonment sentence (reduced later to 18 months) and he begins a new hunger strike in which Maragakis accompanies him. This strike stops in July when the government announces a bill. This draft law, which also provided for an alternative civil service of double duration, was never introduced for discussion in the Parliament.

During the imprisonment of Maragakis and Makris an enormous international campaign of thousands of support letters is developed bringing the government in defense position. In Greece tens of concerts and events are organized in support of Maragakis and Makris, while more than twenty persons declare conscientious objectors for ideological reasons.

Michalis Maragakis is released in December 1988 after three successive hunger strikes of 71, 50 and 20 days, while Thanasis Makris is released in July 1989 after two strikes of 55 and 33 days. Both of them are released having served the 2/3 of their sentence. Meanwhile, a new law provides for unarmed military service for the ideological conscientious objectors as well (February 1988). However, nobody makes use of the new regulation.

The same period, and as evolution of the groups supporting Maragakis and Makris, the Association of the Greek Conscientious Objectors is founded by 12 persons who declare themselves conscientious objectors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Athens (18th of November 1987). Although the Jehovah's Witnesses continue to be jailed (those years there were always about 400 of them in military prisons serving four-year imprisonment sentences), the prosecutions against the non-religious conscientious objectors, with the exception of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suspended.

The situation changes in May 1991 when Nikos Maziotis is arrested. The arrest of Pavlos Nathanail follows in September. In their statements they declare as reason for their objection their class/anti-authoritarian conscience and they declare their unwillingness to serve any form of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They are convicted to one year imprisonment sentence suspended for 3 years and they are released, while new marching orders are delivered to them, a

usual practice of the recruiting authorities. Maziotis is arrested again on the 9th of October 1992. He begins a hunger strike that will last 50 days and will stop with his release.

In 1992, the government of New Democracy announces the preparation of a bill whose course is terminated by the end of the year when the (solely consultative) Legal Council of the State rejects it as non-compliant with the constitution. The next governments spread rumors about a bill which will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trying with various tricks like the “social service in the army” to minimize the pressures both from abroad and from the interior of the country. The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reached around 100, although they are not all willing to serve an alternative civil service, if and when it is provided by law.

Most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moved from their homes and the authorities do not pursue them, a situation that will change with the arrest of Nikos Karanikas in 1995. Karanikas is transferred to a military prison and convicted to a four-year imprisonment sentence for draft evasion in a time of general mobilization. In December 1995 and following a big movement of support, the military court of appeal reduces his sentence to one-year imprisonment suspended for three years. Nevertheless, while he was leaving the court room he was delivered with new marching orders. Karanikas does not report for duty so henceforth he is charged with desertion. Also charged with desertion, Nikos Maziotis, arrested in the meantime for another offence, is convicted in 1998 to a ten-month imprisonment sentence which the court of appeal reduces to eight-month.

In the meantime, and after the Association of Greek Conscientious Objectors together with the Savas Karsitlari Dernegi (War Resisters of Izmir) were honored with the Friedrich Siegmund-Schultze Peace Prize by the German E.A.K. (Evangelische Arbeitsgemeinschaft zur Betreuung der Kriegsdienstverweigerer) (February 1997), the Greek Parliament passed a law introducing, with big delay in comparison with the rest of Europe, a kind of civil social service as alternative to the military service (Law 2510 of 27/6/1997). The term conscientious objector is mentioned for the first time in a legal text, without though marking the formal recognition of the human right. This is clearly shown

by the preamble, where it is stated that “dealing with the relative issue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s, respecting always the obligatory and catholic character of the military service, is necessary and for the compliance of the country with obligations undertaken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main law ruling the refusal of conscription for reasons of conscience today is law 3421/2005.

The attitude of the army hardens a lot immediately after the law is voted. The first Jehovah’s Witnesses who refuse to serve an alternative service are convicted to a six-year imprisonment sentence (double time than the dura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at that time), while Lazaros Petromelidis and Yannis Chrysovergis appeal against the excessively long duration and the conditions of serving the alternative service. Petromelidis is arrested near his residence and in April 1999 he is convicted to a four-year imprisonment sentence. Following a big movement of solidarity, the military court of appeal decides for his release.

As expected, the law did not solve the several and complex problems which had been accumulated all these years. Nevertheless, its voting was welcomed as a positive step both by abroad and by the Greek conscientious objectors who chose to support the institution with their participation. From 1998 until today, around 2000 conscientious objectors (the vast majority being Jehovah’s Witnesses) have served or are serving an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However,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of the institution has revealed a series of problems, for which additional legislative regulations are required. These regulations have been adequately analyzed in the exceptional report of the Greek Ombudsman (1999) as well as in the proposals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Our Demands:

1) DEMANDS REGARDING THE OLD CONSCIENTIOUS OBJECTORS AND INSUBORDINATE

1.1) To grant amnesty to the old COs (before the law 2510/1997 came into force, on 1/1/1998) and to suspend of all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them.

1.2) To stop the practice of the authorities to prosecute the COs continuously and repeatedly for the same in essence offence.

1.3) To stop judging civilian cases and cases of those who refuse the military status in military courts.

1.4) To depenalize the total refusal to serve military service. At first, to suspend the penal prosecutions and those of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which break the fundamental political and civil rights.

1.5) To decrease the age limit for military duty (45 years today) at least one decade.

1.6) To abolish the “in absentia” conviction for matters of insubordination in general.

1.7) To provide for buying off the service as provided for those enlisted and in proportion to the tax statement of the concerned person and depositing this money to a service different from the army.

2) DEMANDS REGARDING THE INSTITUTION OF THE ALTERNATE CIVILIAN SOCIAL SERVICE

2.1) GENERALLY:

2.1.1) The institution to be under a non-military supervisory authority.

2.1.2) The right to serve alternative service to be mentioned explicitly and analytically in the information documents about conscription.

2.2) DEMANDS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S

2.2.1) The special advisory committee, also known as conscience control committee, to be abolished. All the applications for alternative service to be

automatically accepted.

2.2.2)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or status to be recognized at any time, before and after the enlistment in the armed forces.

2.2.3) The right to conscience objection to be recognized even during war or emergency situation.

2.2.4) All the “irrebuttable presumptions” to be abolished as well as the provision which denie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individuals who are prosecuted for illegal violence - but not sentenced, because like thi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s violated. The unacceptable provision which denies the right to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hunters and members of the rifle clubs to be abolished too.

2.2.5) The process of applying to be simplified. If some of the “irrebuttable presumptions” remain, certificates and documents not to be required since a personal legal statement is asked anyway.

2.2.6) The derogations to be abolished and replaced by a system of sanctions.

2.3) DEMANDS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THE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2.3.1) The dura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to be equal with the dur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so that it is not punitive and discriminatory.

2.3.2) The financial needs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s to be really covered. Free food, accommodation and transportation or compensation equal to the basic salary of the unskilled worker.

2.3.3) Transfers:

a) The time away from the residence to be in proportion to this of the enlisted soldiers and then to be able to return. b) The unacceptable geographic restrictions which deny more than half of the population of the country,

included residents of degraded urban areas, the services conscientious objectors could offer, to be abolished.

2.3.4) The prohibition of syndicalism and participation in a strike to be abolished.

2.3.5) The alternative service to be performed 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conscientious objectors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humanitarian missions abroad.

Finland - a trad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a tradition of militarism

Simo Hellsten | Un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Finland, also has experience in East Timor

Let us begin with a short history of the Finnish conscientious objection. I will then move to analysis of the last struggle that lead to the best non-military service act taking force in the beginning of 2008. Finally I take a quick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For reference I suggest reading also Kaj Raninen's short article "Militarism in Finland" that was published in 2004. Since the we achieved the new law, but little else has changed. Raninen's article is available in English, German, Spanish and French (<http://wri-irg.org/node/2695>) and also in Korean (http://peace.jinbo.net/maybbs/view.php?db=peace&code=sosikji&n=281&page=20&mode=search&area=ctgr&key=)).

From an Autonomy to the "First Republic"

Finland has a long history of conscientious objection dating back to at leas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hen Finland was still an autonomous Grand Duchy of the Russian Empire (as it had been for a century). In call ups of 1902 there was a staggering 50% rate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the Russian conscription. It is a pity though that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rives most not when it is perceived as an act of peace but as an act of nationalism.

In 1917 Finland was awarded independence in the aftermath of the first World War and the Russian revolution. The new republic instituted conscription to all male citizens around the time of Finnish civil war in 1918, when there was a tremendous surge of militarism on all sides. The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after the first World War was, however, not without some influence and thus in 1922 it became possible, for those with religious grounds, to serve in the

military without bearing arms.

In 1926 there was another development as the anti-militarist protagonist Arndt Pekurinen, a member of the Finnish WRI section of the time, refused all kinds of military service and was sentenced to prison. His struggle resulted in the first non-military service act in 1931. But the next era in the history of Finnish conscientious objection was still to be its darkest perio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Finland fought two wars against the Soviet Union and one against its former ally Nazi Germany. Although refusing to bear arms took place, from this period one seldom hears stori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During the wars many former non-military servicemen were imprisoned and some executed – with or without a trial. A summary execution ended also the life of Arndt Pekurinen in 1944.

The “Second Republic” and its inquisition

After the war a new non-military service act took force in 1959 extending the accepted grounds for application to ethical reasons but also introducing a board of inquiry to weight each individual conviction. In the 60's there was increased activity around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in 1969 a new better non-military service act was gained. Around this time the numbers of conscientious objectors shifted upwards and the military-minded state took counter measures. The board of inquiry took a more harsh policy and started to refuse applications to non-military service, often resulting in imprisonment to those rejected.

The next struggle from the mid 70's to mid 80's managed to get rid of the board of inquiry as an interim law was passed. The interim law “Lex Pihlajamäki” removed the board of inquiry and exempted the Jehovah's witnesses, who until then had been total objectors, but was otherwise a disaster. The law extended the period of service by 1/3 and effectively militarized the content of the service.

A new struggle started immediately as the interim law took force and

continued throughout its duration. The protests culminated in 1990 non-military servicemen's strikes aimed at forcing the upcoming permanent law to stop the absurdities of the interim law. At this time there were also a few hunger strikers joining the protest from prison. The new law was progressive at the time, but after the long struggle the conscientious objectors' movement was worn out and collapsed. The peace movement was also further weakened by the recession of the early 90's.

The “Third Republic” and the current law

In the mid 90's a new generation of young anti-militarists took over the diminished and virtually bankrupt association. The emphasis on total objection and other more radical views were growing. But in 1997 a new struggle to reform the non-military service became current as the military service was cut down but the already promised proportional cut down in the alternative was taken back. This was time and the struggle I joined in, but what we gained and how?

From 1997 to 2007 there were three legislative processes on non-military service and two on military service. While the legislation on the military service passed with little arguments, the parliament rejected twice any significant improvements to the non-military service. Strange enough the third parliament passed unanimously practically the same improvements rejected by the previous two. For the reason of this result, we should look at the system more closely while keeping in mind what was done by the movement to push for the change.

How to be noticed?

Finland is almost thoroughly militarized, since almost every male citizen passes through the military machinery. Also there are defence courses organized by the defence administration for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leadership in order to keep up the military mind (while also extending the militarism to the few females who might have reached some of the really important positions). Finland also has a certain kind of political balance and culture that leaves little space to manoeuvre when promoting alternatives to military service.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some major policies are in set by the three big parties with the support of the industry and the labour movement. This tyranny of the majority is called consensus in the Finnish political language. (Who could possibly go against a consensus?) This tripartite system is a strong proponent of conscription, weapons industry, destructive forestry and nuclear power. It is not easy to gain more right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just because we have the right to them.

Union of COs in Finland (AKL) is a small organisation. We have about 1500 total members, about 100 active members and some 20 – 30 activists/organizers. Until recently we didn't have permanent staff. So how did we manage?

Based on our internal discussion, I have identified from the struggle of 1997-2007 four major areas of action:

1. Maintaining the symbols of struggle
 - Total objection
 - Demonstrations
 - Other forms of protest
2. Getting international attention
 - Reports by international bodies
 - Support from international organisations
3. Communicating with the parties, ministries and MPs
 - Basic lobbying
4. Correcting false information put out
 - Countering counter lobbying

For each of these areas there can be seen at least three important aspects,

that affect the success

1. background information
2. timing
3. discourse

Much of the work was done in basic lobbying, but this was also done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support. For lobbying especially we noticed that timing is essential, perhaps more important than any actual information. The reason is found i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different parties.

In a traditionally militarized society CO issues before elections can be perceived as negative publicity for the upcoming elections, should a party aim for 30-40% support. The same thinking on the other hand makes the parties favourable to the army's intentions, which often include downsizing the numbers of CO. While already in power, on the other hand, is not a great time to lobby either.

A 3+3 party system

In Finland we have three major parties and three medium sized parties. During the previous struggle each of them were in the government coalition one time or another. To gain majority in the elections and to be in the government the big parties play a complicated game until the forming of the government. In the government there will always be two big parties and usually some supporting parties,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government can in principle be formed from any two of the three big parties.

The key for change in the legislation lies with the government's program and thus its negotiation process. The program is the ground rules for the government's activities in the next 4 years. Social Democrats (SDP) are in principle the most CO-minded and thus during the negotiations they are considered by the other parties liable to give something in return for better CO-status. SDP on the other hand has always seen the CO-rights something to be sold out, since the CO votes are not many. Therefore once SDP was out of the third government dealing with the non-military service act, there was nothing more for the right to gain by suppressing the rights of COs and the

improved law passed.

During the struggle we learned not to put most lobbying effort in the parliament hearing of the act but in the program when forming the government coalition. The next step then was to lobby the ministers to implement the program in the best way. Once in the parliament majority is well prepared law will usually pass without problems.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To be able to put the CO-issue to the political agenda we needed to show it as a significant problem. The Finnish politics is two faced game. Internationally we are one of the good guys, but internally a bit less interested in the minority rights. Therefore to have international pressure is a precondition. We needed to have international bodies to see CO-issue as a problem before our national decision makers would react.

To have international visibility total objection was central. This we could then emphasize also with less confrontational, more traditional protests. Demonstrations will not end up on the UNCHR or COE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agenda as easily as do people in prison. With the Jehova's witnesses already exempted, from 1997 to 2002 we had an increase of 175% in the numbers of imprisoned COs (from 29 to 80). It was also important to underline the problem of discriminative law in the declarations of the objectors.

With the struggle made visible, we were able to obtain statements from the Amnesty International in 1999, the CO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2001 and eventually in 2004 from the UNCHR and European Social Committee. Especially in 2004 the role of WRI was significant. Also the less official international support was important.

The image of the CO

In the final phase in 2006-2007 it was not enough to sum up the reasonable arguments for changing the law. We also had to deal with semantics. For especially the rural centre party the vote would be decided more by sentiment

than by reason. We needed to show that CO is not directed against the state as such (although in many cases it is, and perhaps we were not all that honest about that).

In the final phase to have the new law pass, we needed to go through a process of revising the training in non-military service. The new law proposal included granting CO-status also in times of crisis. This resulted in a political demand to militarise the content by introducing a supportive role of civil protection (material support and humanitarian work to enable military action by freeing human resources for the front line). We were able to take part in process and succeeded in preventing a new version of Lex Pihlajamäki of 1986.

As we revisited the training curriculum we found out, as we expected, that protection professionals were not interested in having little trained COs to run complex civil protection activities. Still we had to give an impression of CO as a concrete benefit to a country in crises. We came up a moderate curriculum not so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 divided into 3 lines of study: everyday-protection, cultural-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asic citizen skills. Apart from the terms the changes were cosmetic.

The result was approved by everybody and we were able to alleviate the last major objections in the parliament. Incidentally we might even gained more space to refuse military service. For those not so keen on serving in the military, it now seems, the line for “everyday-protection” is a plausible option, unlike the more stigmatized service before.

And as mentioned before, the law passed unanimously in December 2007 and took force 1 January 2008.

The Non-Military Service Act 28.12.2007/ 1446

In the new non-military service act there was a significant amount of progress, but everything was not settled. The current period of service is 12 months, where as it should be more like 6-9 months. The CO status is now granted also in times of crises, but those having served in the military but

refuse in times of crises will have to face a new board of inquiry. And, unlike the UNCHR demanded, the total objectors continue to be imprisoned for a period of ½ of non-military service.

Never the less this still is the best non-military service act in the history of Finland.

Since the law took force, we had another successful struggle about the transitional provisions. The transitional provisions included different period of service to those already called to service and those who had not yet begun. The difference was 33 days, and from this we started the 33-days-campaign of total objection. The transitional provisions were not in line with the criminal law principle, that should the law change during the legal process the more moderate law should be applied. We got several 395-day-men refusing the last 33 days and we won the case in almost every case. Most of the district courts ruled in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 and the effective period of service for the sentence was 362 days, and thus the objection would not result in imprisonment. This position was later confirmed by the appeals court in Helsinki.

So now, while we wait for the next report to UNCHR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ur focus in non-military service has been following up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law. But the other challenges on CO remain little changed.

Total objectors

The numbers of total objectors today are not quite as high as in the mid 2000, but we have COs imprisoned all the time. For total objectors the new non-military service act reduced the prison term from 197 days to 181 days. But the principle has not changed, and I can quote Raninen (Conscientious objection in Finland, 2004, <http://wri-irg.org/node/2691>):

Total objectors are sentenced to unconditional prison sentences. The length of the prison sentence is derived from a simple formula: it is half

of the remaining time counted as a substitute service time. If a total objector has not done any service before his refusal, his sentence will be 197 days. The prison sentences of total objectors are normally executed in open prisons,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to work or study outside the prison on weekdays. However, sometimes total objectors have been transferred to closed prisons, where they have to serve their sentence or part of it literally behind bars. [...]

There have also been a few cases where a total objector has also refused to take part in enrolment, which takes place in the year the conscript turns 18 years. However, according to Finnish legislation, total objection will be recognised only after the conscript has been enrolled and declared fit for service. In this cases the total objector receives a fine and a new order to to enrol. If he still refuses to go, he will be fined again. This "vicious circle" may go on for years.

A special method of action for a total objectors that has been used twice is after the court ruling to flee the country to another EU state and to officially and publicly ask for asylum based on persecution for conviction. One of the two Finns doing this is at the moment in the process in Belgium. This method has successfully brought some international as well as national publicity.

Discrimination

Another issue for COs is discrimination during and after the service. This is not an issue of legislation but of attitude leading to breach of law by employers and businesses.

The law gives equal economic benefits to those serving in the military and those doing non-military service. This shows in discounts for public transport, entry fees to events and some other discounts. With sports events this law is commonly broken and also from time to time with public transportation. For these issues we gather information from people contacting us and act formally or informally to correct the issue with the service provider.

After the service discrimination is not always quite as easy to prove. We do have illegal job announcements demanding the applicants to have served in the military. To correct this we have an established procedure and a responsible administration to be contacted. To be discriminated against when the words are not put on paper is more difficult to prove, but it seems clear, that this also this kind of discrimination takes in the labour market and on work places.

The struggle for CO rights in Finland continues, but at the moment we are, so to say, in a calm. We work on the issues of total objectors on individual bases, but there are no concrete ideas how to force any general improvements. With AKL, I think, there is at the moment increased focus on militarism in other areas. Especially we have been looking at NATO and also arms manufacturing.

Conscientious Objection in Israel

Alex Parushin | New Profile, Women conscientious objector

I was born in Estonia, former Soviet Union. When I was 12, me and my family immigrated to Israel. Until then I never imagined I would be a soldier one day. Only four years later, at the age of 16, I couldn't wait to get the first letter from the army, I really wanted to enlist. How did it happen?..

In those four years I was taught the basics of Israeli-Jewish national common sense. They told me that "Israel is a little country surrounded by enemies". This slogan-belief aims to assure a sense of community which very existence is intimidated threatened. Other wide-spread slogan-beliefs are "The army of the nation" and "All the nation is the Army". All the people are presented as former, present or future soldiers. It's also used to back up the deeds of the military - we all are the army, the one that blames the army, blames the whole nation.

At first glance, Israeli law aims for 100% of recruitment, of both men and women. "Everyone goes to the army", I was told over and over again. It seemed as an integral part of growing up. You go to primary school, then to junior-high, then to high-school, then to the army, then to higher education and so on...

Military service was widely discussed in the high-school, but never questioned. We had lessons teaching us about the army structure and the recruitment process, we visited army bases, we heard war stories from veterans. Soldiers are a common image in books, newspapers and television. Each year, just before the independence celebration night, all schools hold a memorial ceremony for soldiers that died during their service.

At the age of 17 my class and I were recruited for one week in a special youth base. It's a common activity organized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dditional means of preparation for the army and to increase our motivation to serve. Gladly, for me, it did exactly the opposite. Holding and shooting a real rifle made me realize the deadly meaning of the army. From that moment, slowly and gradually, I started to question the sacred necessity of

the military service and at the end decided to refuse.

So no, not everyone in Israel is recruited. Orthodox jews and most of the Arab population are automatically exempted from service (which is used as an excuse for discriminatory practices towards those groups). Many teenagers make an effort or lie to get exemption on medical or mental grounds. Some women claim they're religious or fake marriage. We don't know the rates of such "gray objection", since it's not documented anywhere.

Women recruitment doesn't make the Israeli army feminist, if not the opposite. Most of the female soldiers are put in traditional roles of support, caring and teaching. Sexual harassment is quite common. In spite of the service, women are excluded from the "security" discourse and almost not involved in decision making surrounding the conflict.

The central place of the army in the society forces militaristic views on all public issues. It affects how most of the jewish Israelis see the occupation of Palestinian people. It promotes the black and white division, "we are good and they are evil", us versus enemies. The army's necessity is based on the occupation, so it has no interest in ending it.

The Israeli antimilitarist movement is one of the forces that is trying to change that. After some achievements and publicity, we see a backlash. A couple of months ago a pro-military parents group made a national TV ad under the slogan "A real Israeli doesn't dodge the draft", and lately police opened an investigation against "New Profile" activists. This is a quote from the press release:

The attempt to criminalize New Profile, begun in September 2008 with the Israeli Attorney General's announcement of a criminal investigation of the movement, has now been accelerated. On April 26th, a day before Israel's Memorial Day, Israeli police produced a hyperbolic piece of political theater. As if facing down a dangerous organized crime "family", they "raided" – to quote their press release – the homes of six activists in different parts of Israel, who were summoned for interrogation. Exploiting the ritual emotions of a day of mourning for military dead, this police action singled out and branded anti-militarist activists as non-members of the legitimate community.

We don't know yet what outcomes this investigation will bring, but the concern is real. You're welcome to visit the newprofile.org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and support.